

## ■ 유럽 가스 가격, 공급 불안정과 수요 증가로 2024년 들어 최고치 기록

- 러시아산 PNG 공급에 대한 우려 가중과 추운 날씨로 인한 가스 저장설비에서의 인출 증가로 인해 유럽의 가스 가격이 2024년 들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<sup>1)</sup>
  - 2024년 11월 22일, 유럽의 TTF 가스 가격은 €48/MWh까지 상승했음.
  -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의 가스 시장은 공급 차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,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호 간에 더욱 강력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음.
  - 최근에 국제상업회의소(ICC)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Gazprom에게 오스트리아 OMV에게 2억 3,000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, 이에 대해 Gazprom이 11월 16일부터 OMV에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11월 15일에 발표했다.
  - 오스트리아, 슬로바키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 받고 있으나, 우크라이나가 더는 러시아산 가스 수송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해당 경로를 통한 가스 수송은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말 이후 중단 예정임.
  - 또한, 평시보다 낮은 동절기 기온, 풍력 발전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 저장설비의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가스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   - 11월 말 기준 유럽의 가스 재고는 89.4% 수준이며, 이는 과거 5년간의 동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.
- 추가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Gazprom의 가스 수출대금 결제를 수행하는 러시아 국영은행 Gazprombank를 제재함에 따라 유럽의 러시아산 수입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.<sup>2)</sup>
  - 미 정부에 따르면,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장비 구입에 국영은행 Gazprombank를 이용했으며, Gazprombank 및 6개 해외 자회사를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하였음.
  - 영국과 캐나다는 러-우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Gazprombank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으나, 미국은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동 은행을 대한 제재를 보류했었음.
    - 그러나 유럽의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러-우 전쟁 이전의 40%에서 8% 이하로 급감한 데다,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의 대유럽(슬로바키아, 체코 등) 공급도 2025년 1월 1일 만료될 예정임.
  - 또한 미 정부는 다른 외국 은행들이 러시아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필요 시 2차 제재를 발효하겠다고 경고함.
  - 이번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국의 대금 지불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,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국가의 공급 위험이 더욱 심화될 것임.<sup>3)</sup>

1) Wall Street Journal, 2024.11.22.

2) Financial Times, 2024.11.22.

3) Wall Street Journal, 2024.11.22.

- 추가로, Siberia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 역시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.
- ※ Kpler에 따르면,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의 70%는 러시아 루블로 결제됨.